

106. 예수님께서 추함에 대해 말씀하세요.

2015.08.0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예수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너가 얼마나 매우 아름다운지.. 그리고 너는 추함이라는 정말 나쁜 증상을 가지고 있어. 비난에 비난에 비난을. 나는 너가 며칠 동안 이것으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고 나는 이것을 멈추기를 원해. 나는 너가 적들이 너를 모욕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어. 클레어, 이것은 정말 너를 지치게 만들었어. 이것은 자기혐오야. 정말로 나는 이것을 멈추게 하고 싶어. 너는 적들이 너에게 믿도록 하게 말하는 것처럼 매우 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우 아름다워.

나의 몸의 모든 각 부분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위해 심각한 비난의 움직임이 있어. 나의 신부들아, 이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경고해야해. 이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비난이고 너희들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으로 만들어졌어. 너희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이 세상 어디에도 들 수 없어. 이것은 지구 밖의 것이야.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의미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하게 아름답고, 강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를 높이 든 군대야.

(클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때 저는 에스겔과 제가 솔로몬의 노래에 대해서 썼던 첫 노래를 기억하였어요.

그 중 한 구절은 아가6장에 있었어요.

4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우며 기를 높이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소이다.

5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고 있소, 눈길을 내게서 돌려 주시오. 그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으며.

이것을 읽고, 이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에 그저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멍해진것 같았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흠...”

(예수님)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를때 너가 하는 말이야.

(클레어) 주님은 저를 잘 아세요.

(예수님) 너는 기를 높이 든 군대처럼 아름답고 너의 눈은 나를 사로잡아.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비난에 너무 깊이 빠져있어. 세상에서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의 상태는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있어. 너희들은 어린시절부터 아름다움에 대해

너무나 많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일을 깨닫기도 전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법을 배웠어.

너희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해야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전혀 나의 요점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영혼에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전혀 배운적이 없어: 영혼의 진정한 아름다움. 그 결과,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과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고 자신히 100% 추하다고 느껴. 나의 현실에서 너희들 모두는 내 앞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고, 기를 높이 든 군대로써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그래, 너희들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시민들에게는 잘 보이는 나의 은혜들로 장식되어 있어. 만약 너희들을 둘러싸고 거하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면 너희들은 긴장을 풀고 추수창고의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역할 거야.

이 메시지에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은 정말로 향기로운 향신료, 사파이어, 금으로 가득찬 대상(사막을 건너는 상인)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안에 있는 나의 임재에서 오는 어떤 왕족의 자질이 있어. 영혼들에게는 아직 무형으로 인식되지만 그들은 너희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나의 아름다운 사람들아, 너희들은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에 의해 그토록 원해지고 높이 평가되어져. 너희들이 가진 것은 내부에서 빛나는 반면, 세상이 가진 것은 외부에서 빛나.. 하지만 내부는 죽어있어. 너희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데 능숙하지만 내부는 영적으로 죽은 유명인들과 절대로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되.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내부의 빛이야. 밝게 빛나든, 간신히 깜박거리든, 심지어 존재하지 않든.

너희들이 이 거짓된 추함에 짓눌릴때,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도망치고, 숨고, 쉽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의지가 약해져. 이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고 있어. 너희들이 느꼈던 피로의 일부는 건강에 해로운 자기비하로 인한 낙담이야. 적들은 이것을 두 갈래 공격으로 사용해. 너희들이 외적으로 추하다고 느낄때, 그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최악은 그것이 너희들을 나 혹은 내가 보낸 영혼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로 초점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야.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영감을 받을때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즐 준비가 되어있어.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된 오랜 낡은 포도주 가족 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를 바라는 거야.

(클레어) 오 주님, 제 머리에 그 뭇(요점)이 정확하게 찰렸어요.

(예수님) 그래, 그 뭇이 너를 끌어내리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 게다가, 너는 이틀동안 세상에서 지나치게 활동하였어. 내 사랑아, 이 모든 것에는 영향이 있어. 만약 너가 생명의 물을 가지고 전진하고 싶다면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조절해야해. 세상에 나가는 것에 대한 너의 거부감을 나도 잘 알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신부, 나의 몸, 사람들에게 말해. 성취, 존재감, 외모, 성격 등 세상적인 자질에 겁먹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에 대해 너희들을 낙담하게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5장14~15절.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나의 은혜들로 넘칠때까지 점점 더 채우고 싶어. 너희들 안의 많은 것들이 고갈되고 상처를 입었어. 이것에 대한 나의 치유법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찬양하고, 안고, 너희들의 찬양을 받도록 해줘라.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너희들에게 쏟아부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약해지고 고갈된 상태에서 일어서서 나의 사랑의 빛을 이 상처입은 세상으로 가지고 갈 거야.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 나의 사랑의 향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을 기억해라. 그들은 수확할 수 있는 익은 과일들이야. 그들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구출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아름다워! 이 어둡고 희망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의 빛이 빛나도록 해라. 나의 승인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채울때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으로 너희들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래.